

언론 사람

12
2021
VOL.258



04 창립 40주년 돌아보기

06 Newmedia of the World
뉴스레터발(發)
새로운 언론사가 온다

10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난민과 입양

22 미디어 이슈 진단
홍악범의 변호인에 대한 보도
유감(遺憾)

Contents

2021 December

04

창립 40주년 돌아보기

06

Newmedia of the World

뉴스레터발(發)

새로운 언론사가 온다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마음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10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난민과 입양

12

돋보기

길을 묻다

14

단어의 중력

재회

16

책의 밀도

“너희는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해”

- 리처드 파월스, 『오버스토리』

18

식물관찰자의 일기

식물의 시간

20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22

미디어 이슈 진단

흉악범의 변호인에 대한 보도 유감(遺憾)

23

언론  사람 웹진 개편 안내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표지작품 plui_e <winter forest>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긴 세월은 저절로 흘러간다
”

영국의 작가 마리아 에지워스의 말처럼 코로나19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평범한 순간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그토록 사라지길 바랐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드 코로나’로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언론  사람 12월호는 창립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웠던 2021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호에는 뉴스레터 플랫폼이 야기한 언론사의 변화를 포착한 <Newmedia of the world>, 취재과정에서 만난 난민과 입양인들의 사연을 담은 <새가슴PD의 분쟁현장 르포>, 흉악범의 변호인 관련 보도 문제를 짚은 <미디어 이슈 진단>까지 언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단어의 중력>에서는 이별과 만남이 공존하는 ‘재회’라는 말의 의미를, <책의 밀도>와 <식물관찰자의 일기>에서는 식물과 인간의 시간 그리고 삶에 대해 살펴봅니다.

흘러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날들의 설렘이 교차하는 12월, 언론  사람과 함께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립 40주년 돌아보기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의 40주년 기념사, 위원회 내·외부 주요인사 축하 메시지 등은 <언론 <사람> 4월호에 담았는데요. 무엇보다 창립기념일을 위해 위원회 블로그,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신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은 앞으로 위원회의 행보에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석형 위원장, 인터뷰 통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피해구제 필요성 강조

올해 상반기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40주년 기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 해결의 준사법적 조정·중재 핵심기구로 확실히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하고, “유튜브 등 기성 언론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1인 미디어도 언론중재법에 포섭해 신속한 피해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계간 <언론중재> 40주년 특집호 발간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법제 분야 전문지로 40년 역사를 함께 해온 <언론중재>는 창립 40주년 특집호를 발행했습니다.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를 짚은 기획논문, 언론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기고문 등은 앞으로의 40년을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과 한 자리에 모여 축하할 수는 없었지만 내실 있는 기념사업들이 1년 내내 이어졌는데요. 숨 가쁘게 지나온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의 발자취를 정리해봅니다.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 성과 진단하는 학술행사 열어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의 40년 성과를 돌아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월 4일 개최된 전문가 좌담회, 5월 27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보다 실효성 있는 언론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는데요.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피해확산 예방의 방법으로 '기사열람차단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 참석자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대학생 모의조정대회 성황리에 개최

위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대학생 모의조정대회가 첫 개최되었습니다. 참여한 약 80명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언론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고 직접 모의조정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요. 10월 29일에는 최종 결선 2팀의 모의조정 시연과 최종 수상한 4팀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참여자 모두 이번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 해결 노하우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1년간 함께한 창립 40주년 기념 홍보 이미지

2021년에 발간된 간행물, 개최된 행사 포스터 등에는 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엠블럼과 일러스트가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위원회 캐릭터 '어니' 이모티콘은 많은 분들께 큰 호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40'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각종 홍보 이미지들을 통해 위원회 창립 40주년의 의미가 많은 분들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뉴스레터발(發) 새로운 언론사가 온다

지난 11월 18일, 미국의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은 창작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알음알음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을 모든 창작자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회사 직원도 아닌 플랫폼을 이용하는 창작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맥락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서브스택은 더 유능한 저널리스트들을 독립 창작자로 영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특히 독자 기반이 단단하고, 유료 구독 잠재력이 높은 기자들을 모시기 위해 공격적인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찰리 와젤(Charlie Warzel)과 같은 쟁쟁한 오피니언 작가의 출혈을 이미 경험한 뉴욕타임스가 인재 이탈의 위기감을 느끼며 자체 뉴스레터 플랫폼을 내놓기까지 할 정도다.

서브스택의 의료보험 관련 정책은 기자들이 독립 창작자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 장벽 하나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나아가 대형 언론사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편의들을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이 서브스택의 구상이다. 명성과 평판을 보유한 기자들이 자유롭게 독립선언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겠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서브스택의 '공격성'은 지역 뉴스 펀드¹⁾에서 보다 또렷하게 드러난다. 서브스택은 지난 4월 '서브스택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언론사의 폐간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지역 전문 기자 30명에게는 최대 연간 10만 달러, 약 1.2억 원이 지급된다. 1년 동안 지역 저널리즘의 가치를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 언론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신규 창업 장려를 위해 현금 대출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물론 서브스택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유료 구독모델을 운영한다는 전제다.

긴장감을 느낀 기성 언론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디애틀랜틱(The Atlantic)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애틀랜틱은 기자 이탈 방지 차원을 넘어 기자들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다.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의 오묘한 계약 형태를 제안하며 집 나간 작가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중이다. 명분은 디애틀랜틱의 뉴스레터 구독자 확대다. 이를 위해 일종의 준 독립형 작가 플랫폼을 출시²⁾하고 9명의 작가를 영입했다.

영입된 작가들은 일단 편집국장의 감독을 받긴 하지만 그 외 모든 외부 저작 활동은 간섭받지 않는다. 작가 입장에서선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디애틀랜틱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고 빠어난 편집진의 도움도 얻을 수 있다. 구독자 목표치를 초과하면 추가 수당까지 지급받는다. 결별도 어렵지 않다. 약간의 위약금만 지불하면 된다. 정규직 기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프리랜서도 아니다. 서브스택의 빠른 성장이 만들어낸 풍경인 것이다.

워크워크³⁾라는 신생 미디어의 조직 구조는 더 흥미롭다. 11월 초 출범한 워크워크는 분산형 네트워크 미디어 조직에 가깝다. 개별 기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높은 급여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무엇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초과 수익은 내부 규칙에 따라 나눠 갖는다. 최고경영진에 편중된 보상체계를 폐기함으로써 창작자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워크워크의 공동창업자 베커 셔먼은 이렇게 말한다. "전통적 미디어 구



조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임직원과 영업 리더가 최고로 보상받도록 설계됐다. 미디어는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고 새로운 것을 구축했다.”⁴⁾

이 모든 흐름은 뉴스레터라는 재부상한 유통 채널로 귀결된다. 기자와 독자가 직접 연결되고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접점에서 파생된 현상이다. 소속이 어디든, 기자들은 독자 목록을 갖고 이곳저곳을 유랑할 수 있게 됐다. 지속가능한 수익만 보장된다면 더 이상 대형 미디어 조직에 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독립을 선언하는 유명 기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덩달아 실력 있는 기자들의 몸값도 높아지는 중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않아야 할 대목이 있다. 기자들의 독립성 보장이다.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며 평판을 키워온 저널리스트에게, 기성 언론사는 충분한 보상과 안정적 고용, 자유로운 글쓰기를 허락하지 않아 왔다. 위계적 의사결정 시스템과 불안한 노동 조건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자부심과 역량 발휘를 방해해 온 요소들이다.

얼마 전 포인터(Poynter)에 ‘기자들이 언론사 정규직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향하는 이유’라는 기고문이 실렸다.⁵⁾ 기고자는 일간신문에서 5년 근무한 전직 기자였다. 그는 “내가 원했던 것은 나에게 중요한 스토리를

피칭하고 실제로 그것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을 내어주는 에디터들과 함께 일하고, 스토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가능한 한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해 내 작업물을 다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로서 당연히 누리고 싶어 하는 동료들과의 협업과 토론, 독립적인 취재와 보도, 노동에 걸맞은 보상은 ‘기다려 달라’는 반복된 답변에 묵살당하고 만 것이다. 새로운 계약 유형을 제시하는 언론사의 등장과 부상이 이러한 고민에 빠져있던 기자들에게 대안으로 인식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국내에서도 ‘기렉시트’라는 말이 떠돈다. 비아냥과 조롱이 뒤섞인 절망적 언론계 현상을 설명하는 조어다. 다른 한편으로, 저널리즘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기자들에게 기성 언론사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상징하기도 한다. 미국처럼 대규모 해고와 실직, 이탈이 국내 언론계에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뉴스룸 밖으로 나가려는 기자들의 절박함은 점차 커져가는 형국이다. 새로운 유형의 계약 형태와 언론사 모델이 국내에도 등장한다면, 언론계가 어떤 격랑에 휩싸이게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어찌됐든 더 나은 저널리즘을 갈망하는 기자들에게 대안의 무대가 마련되고 펼쳐진다는 사실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닐 것이다.

1) <https://on.substack.com/p/introducing-substack-local-for-a>

2)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1/11/introducing-subscriber-newsletters/620579/>

3) <https://workweek.com/>

4)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21/11/10/2331841/0/en/Workweek-Announces-Launch-of-Creator-First-B2B-Media-Company.html>

5) <https://www.poynter.org/business-work/2021/why-journalists-are-leaving-their-full-time-media-jobs-to-go-freelance/>

마 음 을 나 누 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연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날 정도의 이미지라면,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설과 추석을 합친 듯한 명절과도 같다. 즉,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날인 것이다. 또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한데 영국에서는 어린아이들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가족 및 기타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하니, 크리스마스 쇼핑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리 준비하는 경우에는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쇼핑에 나서기도 하지만 역시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쇼핑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는 선물을 잔뜩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고 그 아래 선물을 쌓아둔다. 선물은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어야 풀어볼 수 있다. 예상하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남편이 목걸이를 사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당연히 본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받은 것은 음악 CD였던 영국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슴이나 눈송이 문양 등이 있는 색깔 화려한 스웨터, 즉 '크리스마스 점퍼'를 입고 견과류나 건포도 등의 달콤한 소를 넣은 '크리스마스 푸딩'을 먹고, 대가족이 모여 앉아 '크리스마스 디너'로 칠면조를 구워 먹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람 사는 모양은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할지, 영국의 명절 역시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하지만은 않다. 결혼한 경우라면 시댁이나 처가와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선물이며 귀향 비용이 적지 않게 드니 부담을 느끼기도 할 텐데, 거기에 더해 잔소리가 더해지기도 한다. 오래간만에 모인 대가족이 술도 마셨겠다, 참견도 하고 오래 묵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말싸움도 한다. 심지어 다시는 서로 안 볼 듯이 다투고 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싸웠다는 사실을 일 년간 천천히 잊고 다시 가족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이는 것이다. 어쩐지 더욱더 설이나 추석 같지 않은가.

다만, 작년의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익숙한 풍경을 볼 수가 없었다. 원래 계획은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특별히 모임 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세 가구까지의 만남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월 초까지 약 만 오천 명 선이던 확진자 수가 1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삼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으로 영국의 코

크리스마스

로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이런 계획은 크리스마스를 겨우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다. 오히려 가구원 이외의 사람과는 만남 금지, 필수불가결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지역으로 여행 금지 등 그간에 비해서도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의 들뜬 분위기와 모임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작년 3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두 차례의 고된 록다운을 거친 영국인들로서는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던 크리스마스였으니 매우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은 올해 7월, '프리덤 데이'를 선포하면서 코로나와 관련한 모든 제한 조치를 풀어버렸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답게,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마치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 시절처럼, 모임 금지나 영업제한과 같은 조치를 없애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강제하지 않는다. 올해는 드디어 크리스마스를 다시 크리스마스답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영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삼만 명 아래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 가격 및 기타 물가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및 기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크리스마스 시기 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듯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참이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음식 재료인 칠면조조차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아직 코로나 이전과 같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십여 년 전, 영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어느 크리스마스 즈음에 대형 슈퍼마켓에 갔다가,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싸여 다들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는 서울에 있는 보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엄청나게 쓸쓸해져버린 적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 남편과 딸과 함께였는데도. 설이나 추석에 명절 기분으로 들떠 있는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지 없이 있어야 하는 외국인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크리스마스든 설이나 추석이든 혼자 지내야 하거나 같이 즐겁게 어울리기 힘든 사정이 있어 외로운 사람들이란 있기 마련이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다르지만, 팬데믹 시기, 모이지 말 것을 강요당하는 명절이란 그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모쪼록 다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때가 되기를 바란다.

난민과 입양



프랑스로 입양되었던 한 젊은이를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될 뻔했던 그는 갓난아이 때 프랑스로 입양되어 다행히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답니다. 지금은 든든한 직장도 가진 아주 괜찮은 젊은이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친엄마가 보고 싶어서 한국을 찾아왔고 내친김에 휴직을 하고 한국어학당도 다녔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는 아주 낯선 외국에 온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자 저보다 버스 노선을 더 잘 알고 매운 음식도 아주 잘 먹습니다. 기특하게도 그는 친엄마를 찾아가 “저 이만큼 컸어요.”하고 인사도 드렸답니다. 안타깝게도 친엄마는 사정상 그 젊은이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젊은이는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아쉬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때 한국이 그렇게 살기 힘들었냐고. 지금의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 못지않게 잘 사는데 아들을 버릴 정도로 힘들었냐고.

저는 그 젊은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제 친아들에게 말해주듯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삶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많이 가난했고 외국으로 가면 배는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에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입양을 보냈다고요. 그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전쟁 직후 가난한 한국을 상상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해 1월 1일 저는 그 젊은이에게 떡국을 사주었습니다. 한국은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말을 해주시니 ‘자신은 33년간 떡국을 못 먹었으니 아직 갓난아이네요’라더군요. 마음 아픈 독백을 뒤로 하고 그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지낸다는 소식을 가끔 전합니다. 저는 한국에 오게 되면 저를 한국 엄마처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입양된 곳의 양부모님도 부모님이고 어쩌다 만난 저 같은 사람도 엄마가 될 수 있죠. 누구나 그의 엄마가 되어준다면 친엄마를 볼 수 없는 슬픔과 아쉬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시리아 난민촌에 있는 어느 난민에게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레포에 살던 학교 교사인데 터키로 피난을 나와 2년 넘게 난민촌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분은 아이들과 배곯으며 사는 난민촌 생활이 미치도록 싫다고 합니다. 제일 힘든 것은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입니다. 언제 청산할 수 있을지 모르는 난민 생활에, 하루 종일 세 아이와 텐트에 사는 삶에 지친듯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12살짜리 큰아들만이라도 입양을 해서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30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비극이 시리아에서 되풀이 되고 있네요. 그러나 저는 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니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올 겨울에 이 가족들은 혹독하지만 한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저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스웨덴 룬트라는 곳을 취재 갔을 때 일입니다. 취재 일정이 많아 무려 한 달 가까이 호텔에 묵어야 했습니다. 그 호텔에 동양인 매니저가 있었는데 저에게 무척 친절했습니다. 장기 투숙객이기도 하지만 룬트는 동양인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더욱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매니저는 저에게 자신이 한국 입양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호텔에 갔을 때 분명히 여권을 보여줬음에도 그때 이야기 안 하고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야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아픔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는 친부모가 궁금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살 겁니다.”라고 말해서 놀랐습니다. 평상시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그 말을 할 때는 분노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프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카불에서 미군의 자동차에 치어 사망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살된 딸과 젊은 아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프간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는 시댁에 얹혀살며 눈칫밥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 엄마 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로 인생입니다. 그나마 밥이라도 넉넉하게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프간의 일상은 식량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입 하나라도 떨어야 하니 딸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디론가 시집을 가야 할 것이 뻔합니다.

아이 엄마가 제가 사는 숙소를 찾아 왔습니다. 이 아이가 열 살도 채 되기 전에 시집을 가면 학교 공부를 마칠 수가 없으니 한국으로 데리고 가면 공부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그 아이 엄마의 말을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아프가니스탄은 척박한 환경과 오랜 내전으로 다

들 살기 바빠서 딸의 공부나 장래같은 걸 고민하지 않았던 사회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딸의 미래를 위해 저에게 입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이 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며 아픈간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마음이 절절했고 아기를 제게 억지로 맡기고 갔기에 아끼랑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하루도 못 견디고 엄마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애절하게 울면서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스웨덴 호텔 매니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 마음이 다 똑같다고. 당신의 엄마도 멀리 타국으로 당신을 입양 보내고 불어나는 젖을 짜가며 울었을 것이라고.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생모도 나를 보고 싶어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자식을 놓고 품에 안았던 기억은 평생 못 잊는 기억입니다. 언젠가 엄마를 만나면 미움과 분노는 눈 녹듯이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자랐잖아요.”라며 위로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대탈출극이 벌어졌을 때 미군에게 아기를 맡기며 아기만이라도 탈출시켜달라는 애달픈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그녀도 보았다면 제가 해준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취재 다니며 만난 아이들은 모두 제가 낳은 아이 같았습니다. 취재란 서로 공감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엄마이기에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취재의 기본 토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라 이름 상관없이 부모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일을 하는 새가슴 피디입니다.

길을 묻다

道之所存, 師之所存也.

도지소존

사지소존야

—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운다.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편집하면서, “배우고서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學而時習之.)”라는 구절을 책의 맨 앞에 둔 이유가 의미심장하다.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아기는 태어나 성장하면서 말을 배운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묻는다. 묻는 것이 배움의 첩경임을 아는 것일까? ‘배우고서 때때로 그것을 익히는’ 학습의 첫 단계에서 벌써 묻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道之所存, 師之所存也.)”라는 말은 한유(韓愈)의 명문장인 <스승에 대한 주장[사설(師說)]>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글은 배우는 자가 스승을 따라 학문을 닦아야 할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먼저 스승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스승의 필요성, 스승 삼는 방법 등을 개진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그 전반부만을 소개한다.

옛날의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스승이 있었으니, 스승이란 도(道)를 전하고 학업을 전수하고 의혹을 풀어 주는 존재이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의혹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의혹이 생겼는데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혹은 끝내 풀리지 않는다. 내 앞에 태어나서 그가 도를 들은 것이 진실로 나보다 앞선다면 나는 그를 따르며 스승으로 삼을 것이고, 내 뒤에 태어났더라도 그가 도를 들은 것이 또한 나보다 앞선다면 나는 그를 따르며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으니, 어찌 그의 나이가 나보다 먼저 태어났는지 뒤에 태어났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 귀하고 천함도 없으며 나이가 많고 적음도 없이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아! 스승 삼는 도가 전해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사람들이 이 의혹이 없기를 바라기가 어렵게 되었다. 옛날의 성인(聖人)은 보통사람보다 뛰어난이 심했지만 오히려 스승을 따라 물었는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성인과의 거리가 또한 심하지만 스

승에게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더욱 성스러워지고 어리석은 이는 더욱 어리석어진다. 성인이 성스러운 이유와 어리석은 이가 어리석은 이유가 아마 모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古之學者必有師. 師者所以傳道授業解惑也. 人非生而知之者. 孰能無惑. 惑而不從師, 其爲惑也, 終不解矣. 生乎吾前, 其聞道也, 固先乎吾, 吾從而師之. 生乎吾後, 其聞道也, 亦先乎吾, 吾從而師之. 吾師道也, 夫庸知其年之先後生於吾乎. 是故無貴無賤, 無長無少, 道之所存, 師之所存也.)

嗟乎! 師道之不傳也久矣, 欲人之無惑也難矣. 古之聖人, 其出人也遠矣. 猶且從師而問焉. 今之衆人, 其去聖人之亦遠矣. 而恥學於師. 是故聖益聖, 愚益愚. 聖人之所以爲聖, 愚人之所以爲愚, 其皆出於此乎.)

제목이 <스승에 대한 주장[사설(師說)]>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주제는 '배우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다. 먼저 대전제이자 논의의 출발점으로, 스승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도를 전하고 학업을 전수하고 의혹을 풀어 주는 존재라고 했다. 이어서 배우는 자가 지녀야 할 자세와 배움의 도리를 제시했다. 필자가 보기에, 이 글의 제목을 <배우는 자에 대한 주장[학자설(學者說)]>으로 바꾸어 접근하면 글의 본질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유는 <논어·공야장(公冶長)>에서 말한,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敏而好學, 不恥下問.)”에서 그 모티브를 취했다. 머리가 좋은 자는 대개 남에게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고,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자는 대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혼자 해결할 수도 없다. 속담에 “밭을 가는 것은 농사짓는 하인에게 물어야 하고, 길쌈하는 것은 베를 짜는 여종에게 물어야 한다.(耕當問奴, 織當問婢.)”라고 했듯이 의문이 생기면 신분과 나이를 떠나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 한유는 ‘不恥下問’의 ‘下’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귀하고 천함도 없으며 나이가 많고 적음도 없이(無貴無賤, 無長無少)’라고 했다. 나보다 지위

가 낮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도(道)’는 구체적인 면에서 말하면 도로, 즉 길이다. 모르는 길을 가면 서 길을 묻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혹은 상대가 귀찮아할까, 상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묻지 않는 이들이 많다. 길을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알려 준다. 묻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많은 시간을 낭비한 뒤에 목적지에 이르거나, 아예 이르지 못하기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더욱 어리석어지는 경우이다. ‘추상적인 이치’라는 의미의 도(道)는 더욱 그렇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헤매기 쉽고 의혹을 해결하기 어렵다.

아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다. 어떤 사람이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에게, “공자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仲尼焉學?)”라고 묻자 자공이,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인들 배우지 않았겠으며 또한 어찌 고정된 스승이 있었겠습니까.(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라고 대답했다.[<논어·자장(子張)>] 어디에서든 배웠다는 것과 고정된 스승이 없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누구에게나 배우고 물었다는 것이니, 누구든 스승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비마다 의문과 의혹이 생긴다. 의심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의심날 때에는 물기를 생각하라[의사문(疑思問)]’고 했듯이 배움에는 반드시 물음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학문(學文)’이라 하지 않고 ‘학문(學問)’이라고 한다. 물음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는 단어이다.





재회

중국 단둥시와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연결하는 압록강철교

그리고 한 해의 끝이 또 시작되었다. 이별을 헤아리는 의식을 행할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너는 세 평 남짓한, 빛이 들지 않아 대낮에도 우물 안처럼 어둑어둑한 너의 공간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너는 그 자리에 있었다. 벽면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붙박이장, MDF 박스를 쌓아 올려 만든 책상, 싱글침대가 전부인 간소한 살림이었다. 회사, 집, 몇 안 되는 친구가 전부인 간소한 인생과 그럭저럭 어울린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침 일곱 시 반에 일어나 아홉 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여섯 시까지 일하고, 퇴근 후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집으로 돌아오거나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 어제와 비슷한 오늘, 오늘

과 비슷한 내일이 쌓여 한 해가 지나갔다. 그 시절 네가 누린 소박한 기쁨 중 하나는 작은 원룸에 매달린 작은 발코니였다. 손바닥만 한 테이블과 의자 두 개를 내놓고 너는 틈만 나면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 어린 벗 나무 한 그루가 창밖에 서 있어 외롭지 않았다.

밤낮의 변화,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너는 나무와 함께 겪었다. 꽃이 피는가 싶더니 흩어지고 푸른 잎이 무성하길 싶더니 낙엽이 떨어지고 어느새 빈 가지인가 싶더니 흰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나무는 작년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 사이 한 뼘쯤 자라나 나이테 하나를 더 만들었을 것이다. 기쁨이 고이는가 싶더니 슬픔이 차오르고 심장의 박동이 소

란한가 싶더니 불현듯 막연해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오르나 싶더니 어느새 빈손인 너 역시 한 살을 더 먹고 이별의 리스트에 이름 몇 개를 더하는 중이었다.

전화기와 메일함에 남은 기록들을 살펴보면 너는 더 이상 네게 소용 닿지 않는, 인연은 물론이고 마음 한쪽도 닿지 않는 이들의 흔적을 지워 나갔다. 그러다 몇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날, 그러니까 유월의 마지막 날은 새벽 여섯 시, 중국 통화시의 어느 호텔에서 시작되었다. 일행은 모두 서른 명 남짓으로, 여덟시에 집합하여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 백두산 서파산문을 향해 세 시간을 달려갔다. 게이트를 통과하고, 버스를 갈아타고, 천지로 향하는 1,224개의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차고 있던 손목 시계가 ‘뵙’ 하고 정오를 알렸다.

삼삼오오 흠어진 사람들은 입구에 즐비한 가판대에서 고구마와 옥수수, 생수를 사들고 천지로 향했다. 거기까지 오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 ‘삼 년째

왔지만 비바람과 안개 앞에서 번번이 돌아가야 했던 불우한 여행객도 있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번덕을 부리는 게 이곳 낯씨다’ 등의 말로 잔뜩 겁을 주어 ‘천지를 보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 하늘에 운을 맡길 수밖에’라는 각오를 다지게 했으므로, 너는 애초에 기대로 마음을 부풀리지 않았다. 계단을 800개쯤 올랐을 때 정상 쪽에서 우르르 광광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왔다. 반 이상 올랐으니 걸음을 돌리기는 아깝다. 남에서 북으로 곧장 오지 못하고 중국을 우회하여 백두산까지 왔는데, 천지는 보지 못해도 정상은 오르고 싶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 천지는 그 자리에 있을 테니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기운이라도 느껴보고 싶다. 너는 그런 생각으로 남은 계단을 다 올랐다.

‘천지에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시 와야 한다.’ 가이드는 그런 말도 했다.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먹구름을 헤치고 반짝 해가 빛나 천지의 모습이 드러났다. 우습게도 그리고 다소 건방지게도 너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빌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너는 천지에 다시 올 것이고 그 여정은 훨씬 짧아질 것이다. ‘다시 만나자.’ 네가

천지에 다짐을 놓고 등을 돌렸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너는 압록강 하구에서 상류로 45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철로 앞에서 서 있었다. 중국 단둥시와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연결할 목적으로 1911년에 준공되었으나 6·25전쟁 때 폭격을 받아 동강이 난 다리였다. 끊어진 다리에서 상류로 70미터 지점에는 1943년에 건설한 신철교가 있는데, ‘조종천선우의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다.

강의 이쪽과 저쪽을 잇기 위해 놓은 다리지만, 너는 그 다리를 건널 수 없다. 한반도가 동강이 난 후로,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강의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볼 수만 있을 뿐이다. 너의 조상은 북쪽과 인연이 닿은 적 없으니 건너지 못하는 다리 앞에서 네가 안달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인연이 닿지 않고 소용이 닿지 않아도 마음은 자꾸 강의 저쪽으로 기울었다. 태어나 한 번도 마주한 적 없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없을,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곳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너의 삶은 여기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라는 우물한 사실이 너를 몹시 상심하게 만들었다.

흔적을 지울 이별의 리스트를 훑어가던 너의 마음이 그 사진들 앞에서 멈췄다.

재(再)는 수면에 입을 대고 있는 물고기를 그린 글자이다. 물속의 산소가 부족하면, 물고기는 물 위로 입을 내밀어 숨을 쉰다고 한다. 수면 위와 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를 보고 ‘다시’, ‘거듭’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회(會)는 뚜껑과 받침 사이에 있는 음식, 즉 음식을 보관하는 찬함을 그린 것이다. 사물이 결합한다는 뜻에서 ‘모이다’, ‘모으다’는 의미가 되었고, 후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 시기 등으로 파생되었다.

1,224개의 계단을 올라 정상에 도달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압록강을 가로질러 944미터의 다리를 놓아도 갈 수 없는 곳이 있다. 전자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면 후자는 사람의 뜻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너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의 이름 대신 다시 만나고 싶은,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을 꼽아보았다. 겨울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조용조용 날려 보내고 있었다. 네가 살아 있다면, 너는 또 한 번의 봄과 재회할 것이다. 인연과 마음이 살아 있다면, 언젠가 남쪽과 북쪽은 재회할 것이다. 너는 눈을 감고 천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해 여름의 소원을 다시 한 번 빌었다. 지금은 숙절이었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듭 되풀이되고 차곡차곡 모아져야 할, 지난하고 지극한 소원이었다.



“너희는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해”

리처드 파워스 『오버스토리』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매해 알게 되는 나무 이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동시에 매일 제거되는 나무를 점점 더 많이 목격한다는 것이다. 수형과 이파리 모양을 보고도 무슨 나무인지 몰랐던 무식함이 약간 벌어지려던 때에, 넉 달 전 나는 정원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겠다고 집 마당의 수령 20년 짜리 대추나무 한 그루를 베었고, 한 달 전 집 앞 식당의 새 주인은 리모델링 하면서 15미터짜리 메타세쿼이아 일곱 그루를 베어냈으며, 일주일 전에는 파주시가 도로를 내면서 최소 수십 년 된 포플러나무를 잘라냈다. 소유 욕망을 가진 이들에게 심사숙고란 없다. 나무는 걸리적거린다. 꽤 넓은 토지 면적을 임의적인 위치에서 차지하고 있어 설계와 디자인에 방해가 된다. 그런 탓에 파주 시민들은 요즘 한마음으로 나무 베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호엘, 미미, 어피치, 브링크먼, 카잘리, 파블리체, 닐리, 웨스터퍼드, 올리비아. 9명의 주인공이 등장해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씩을 열어젖혔다가 생의 내리막길을 밝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오버스토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설’에 꼽힐 만하다. 저자 리처드 파워스는 누구도 보여주지 않은 방식으

로 자국의 역사를 다시 쓴다. 주인공들의 출생과 성장이 그 시기 실제 미국 숲의 탄생과 병들, 죽음의 역사와 병치되어 펼쳐지는 것이다. 나무나 숲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여태 끔찍한 순간들을 잘도 넘겨왔다. 베는 만큼 묘목을 더 심는다는 정책을 내세우지만, “젊고, 관리하기 쉽고, 동일한 나무들은 숲이라고 부를 수” 없다.

주인공 패트리샤 웨스터퍼드는 1940년대생으로 추정된다. 그녀와 그녀의 식물학 스승인 아빠는 호모 사피엔스를 상대하는 데 서툴러 둘은 동년배들과 섞이기보다 숲을 친구 삼아 관찰한다. 웨스터퍼드는 커서 식물학자가 되는데, 획기적인 주장을 펼침으로써 학계의 이단아로 몰린다. ‘숲의 모든 나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한 나무를 베면 다른 나무까지 고통 받는다.’ 동료 학자들은 여기에 반격을 가해 그녀의 밥줄을 끊어냈고, 그녀는 하류의 일자리를 떠돈다. 이런 내용은 실제 역사 인물인 1900년대 초의 생태학자 프레더릭 클레멘츠를 떠올리게 한다.

클레멘츠는 생태학 역사상 가장 큰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으로, 나무들이 경쟁자이자 협력자로서 집단을 이뤄 서로 반응한다는 주장을 폈다. 학

계의 주류는 이에 대해 나무들은 독립적으로 생존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결과는 클레멘츠의 대패였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1977년 산림학 박사 과정에 있던 재닌 베니어스에 의해 되살아난다. 베니어스는 어느 날 오랜 역사를 품은 뉴저지의 숲에서 간벌 작업을 하던 중 왜 멀쩡한 나무들을 계속 솎아내야 하는 걸까 싶어 지도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옛날 숲은 간벌하지 않아도 건강했던 것 같은데요. 나무들은 서로 그룹화하면서 자라는 것 아닐까요?’ 이에 대한 교수의 대답은 위협적이었다. ‘클레멘츠처럼 굴지 마라. 안 그러면 넌 대학원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1977년은 숲에게 복된 해이다. 생태학자 레이 캘러웨이드 시에라 네바다에서 오크나무를 구해내고 있었다. 그 역시 당대 학자들의 입장과 달리, 오크나무가 주변 잡초들과 상생하는 게 아닐까 싶어 면밀한 조사를 벌였다. 2년 반 동안 오크나무와 초지(草地)의 상호작용을 측정한 캘러웨이드는 일반 초지에서보다 오크나무 아래서 영양소 총합이 20~60배는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식물들이 서로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1,000가지 이상의 연구들을 모아나갔다. 그러니 최근 100~200년의 인간사는 나무를 베고, 솎아내고, 묘목을 다시 식재하는 여러석음의 되풀이 과정이라 할 만하다.

어린이와 젊은이는 대체로 “식물 장님”이었다가 나이 먹으면서 식물 보는 눈이 생긴다. 초등학교 때까지 마당 있는 집에 살았던 나는 거기 심겨 있던 나무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시절 가을 소풍은 산으로 가서 낙엽 위에 돛자리를 깔고 밥을 먹었지만, 중학교 때 올림픽공원과 롯데월드가 생기면서 숲으로 소풍 가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낙엽이 지고 새순이 돋기를 열세 번. 네 번의 연애, 한 번의 취업과 한 번의 결혼, 한 번의 창업이 있었다. 투룸 오피스텔에서 1년간 살면서는 집에 화분 하나 들이지 않아 기억조차 삭막하다. 그 뒤로 13년은 식물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었다. 창업한 출판사의 첫 책으로 <나무열전>을 펴내고 집에 식물을 들인 뒤 매해 식물 책 기획과 새 식물의 입양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어느 순간 한 장소에서 조우한다. 바로 대규모 벌채를 반대하는 시위에서다. 그들은 급진적 생태주의자로서 개발주의자나 공무원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시위하다가 일자리를 잃는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식물을 좋아하는 이들은 늘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공학도 미미 마와 함께 나무를 지키려고 시위에 뛰어들어 막일꾼 더글러스 파블리ček은 미미가 시위 진압자들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떨자 “괜찮아요. 내 머릿속으로 내가 당신에게 팔을 두르고 있어요”라며 진정시킨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가슴 떨린다. 부상으로 한쪽 다리를 절룩이는 데다



직업도 일정치 않은 그가 단번에 좋아지는 이유다. 나 또한 만나는 사람들이 반려 식물 이야기를 하면 그가 누구든 좋아졌다. 반면 식물을 자꾸 죽이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큰 관심이 생기지 않았다.

사실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원을 가꾼다지만 이것 역시 비판받을 게 많다. 모양이 안 예쁘면 잘라내고, 잡초를 뽑는 행위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생태학은 모든 인류의 일기기에 “배제된 자를 해방시키자는 맥락에서 생태학을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슬라보예 지젝은 뉴에이지스러운 환경보호자들이나 에코적 마인드를 홍보하는 기업들을 거부하며 우리에게 “진짜 우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곳에는 썩은 나무가 가득한데 이는 새로운 나무를 키울 모판이 되어주며, 득시글한 해충은 도나 해러웨이의 말처럼 우리가 친척으로 삼아 공생할 관계다.

“메시아가 왔을 때 당신이 손에 묘목을 들고 있다면, 우선 묘목을 심고 그다음에 나가서 메시아를 맞으라.” 책 속의 이 구절은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종교보다 나무 심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벌목 반대 시위를 벌이다 비극적이게도 올리비아는 불에 타 죽고, 나머지 주인공들은 방화범으로서 평생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소설 속 생태론자는 독자를 비탄에 빠뜨린다. 하지만 행여 인류가 사라지더라도 나무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파블리ček이 나무 한 그루씩 심을 때마다 했던 작별 인사처럼 나도 되뇌인다. ‘버터. 100년에서 200년 정도만. 너희들한테는 어린애 장난 같은 거지. 너희는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해. 그러면 너희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식물의 시간



내 동생 동백나무

8살에 초등학교 정원에 떨어져 있던 동백나무 씨앗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초코볼처럼 생긴 씨앗이 예뻐 양쪽 주머니 가득 담아왔었죠. 저는 그 씨앗들을 집 정원 구석구석에 심었습니다. 어떤 씨앗은 햇볕이 내리쬐는 건조한 흙에, 어떤 씨앗은 우거진 사철나무 그늘 밑에, 또 어떤 씨앗은 풀이 잘 자라지 않는 담벼락 옆에 심는 식이었지요. 동백나무 씨앗이 어떤 환경을 좋아할지 궁금했는데 당시 제가 살던 시골집은 정원이 넓어서 다양한 장소에 씨앗을 심어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싹이 많이 나지 않아서 실망했었는데 만약 그때 흙의 깊이나 딱딱한 씨앗 껍질, 물의 양까지 고려했다면 더 많은 싹을 틔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사 갈 때 어머니는 세 그루를 화분에 심어 언젠가 다시 정원이 있는 집에 살면 마당에 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사도 여러 번 가고 아파트에도 살아서 결국 한 그루만 살아남아 지금 부모님 집 마당에 자라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내려가니 동백나무는 딱 제 키만큼 자라있었습니다. 저보다 8살 어린 동백나무가 제 키만큼 자란 모습에 괜히 뭉클한 마음이 들었죠.

궁궐의 망초

저는 식물을 보면 그 식물의 입장에서 지구에 살아온 시간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동백나무를 보니 이런 제 상상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이라는 전시의 한 코너에 담았습니다. 전시를 위해 2021년 봄부터 덕수궁에 계속 찾아가 잡초를 포함한 모든 식물을 채집·조사했고 9월에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시장 정면에 저와 키가 똑같은 망초 표본을 배치했는데요. 망초는 대한제국 시기 즈음 북아메리카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외래식물입니다.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궁궐이었으니 망초는 대한제국 때부터 지금까지 덕수궁에 살고 있는 셈이죠. 궁궐의 촘촘한 제초작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잡초이니만큼 망초는 끈질기게 궁궐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망초는 대한제국이 망한 1910년 즈음 전국에 퍼졌고 그런 이유로 ‘나라가 망하자 이상한 풀이 돋아났다’ 하여 망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망초 표본 옆에 제가 전시를 준비한 여정을 함께 표시해 놓았는데요. 봄날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던 망초가 전시를 여는 9월엔 제 키만큼 커서 씨앗을 맺는 동안 작가인 저는 전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비교,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몇 개체의 망초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그 자손들이 무수히 퍼져나간 역사는 어땠을지, 지금 덕수궁에서 발견되는 자손은 몇 세대일지 관람객들이 상상해 보길 바랐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속도

망초는 오랜 시간이 걸린 동백나무와 달리 6개월 만에 제 키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씨앗도 모두 성숙한 상태여서 전시를 열심히 준비한 저보다 왠지 더 열심히 산 것 같아 숙연해졌어요.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키가 자라는 식물은 대나무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동안 거의 1미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줄기의 두께를 늘리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위로 곧게 자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대나무 외에도 포플러류나 아카시아, 자이언트 세쿼이아 같은 나무도 빠른 속도로 높이 자라납니다. 짧은 시간에 개체를 늘리는 식물로는 개구리밥류, 한 세대의 교체 주기가 빠른 식물로는 실험용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나 순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인장류처럼 아주 천천히 자라는 식물도 있지요. 식물의 성장에는 양분과 물, 햇빛, 식물호르몬과 같은 조건도 중요합니다. 같은 식물 종이어도 이런 조건에 의해 개체마다 변화무쌍한 크기로 자라나지요.

식물의 진화 속도

식물의 진화 속도는 종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하여 집단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나아가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자연 현상을 말합니다. 식물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해살이 식물보다 한해살이 식물, 나무보다 풀이 더 빠르게 진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가 바뀌는 속도만큼 새로운 유전자 조성을 가지는 자손이 빠르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만큼 진화 속도가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의 진화는 어떤 계획에 따라 이뤄지거나 목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화의 결과는 그저 생물체 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죠. 그래서 진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좋다 혹은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종은 풀 혹은 나무의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또한 식물계통마다 한해살이가 여러해살이로, 여러해살이가 한해살이로 진화하는 다른 방향성을 선택하기도 했지요.

식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지구에서 모든 종은 저마다의 시간과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 자손을 남기는 속도, 진화의 속도는 각기 다릅니다. 주변 식물을 바라보며 2미터 정도 자라고 100세까지 살다가 떠나는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식물이 인간 키만큼 자랄 때까지의 시간, 한 세대가 인간보다 긴 식물과 짧은 식물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진화 속도는 다른 종에 비해 어떨까요?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종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뉴스

인포그래픽 홍보동영상 제작



위원회 홍보를 위한 새 인포그래픽 동영상이 제작됐다. 이번 홍보동영상은 위원회 캐릭터 '어니'를 활용한 이미지 버전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텍스트 버전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제작된 인포그래픽 영상은 위원회 홈페이지 및 서울, 대전, 창원지역 소재 전광판 등에 송출된다.

2021년도 제2차 중재위원 연수 실시

위원회는 12월 중 제2차 중재위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각 주제별 발표 영상을 전국 중재위원들이 온라인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수 주제는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례를 통해 살펴 본 언론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과 '언론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직권조정결정 활성화 방안'이며, 김영미 위원(경남중재부·법률사무소 청안 변호사)과 정도영 위원(서울제6중재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각각 발표한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토론회 개최 예정

위원회는 12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유튜브 등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언론조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는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서울제1중재부 위원)가, 주제발표는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과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서울제8중재부 위원)가 각각 맡는다.

사무처 인사 (2022. 1. 1.자 전보)

성명	근무부서
최영훈	조정본부장
정희성	교육본부장
양재규	심의실장
조남태	감사관
이재범	기획팀장
김문성	예산회계팀장
최명진	조사2팀장
김태호	홍보팀장
이수종	제주사무소장
여종국	대구사무소장
구윤희	대전사무소장
최승민	전북사무소장
장성원	경남사무소장
여운규	운영본부 전문위원(2022년 국방대 안보과정 파견 예정)

위원 동정

신임 중재위원 위촉

2021. 11. 22.자로 새로 위촉된 중재위원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대표이력
대전중재부	김동수	(전)CMB 대전방송 대표이사
경기중재부	김철훈	(전)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미디어본부장
전북중재부	이연주	이연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제주중재부	허영선	(전)제민일보 편집부국장

한선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톡톡릴레이’ 행사 참여

한선 위원(광주중재부·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 빅데이터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한 ‘톡톡릴레이’ 행사에 전문가로 참여했다. 한 위원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리터러시 관련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치완 위원, ‘포스트 혼종성 사회 문화갈등 극복 위한 교양 교육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주제 발표

김치완 위원(제주중재부·제주대 철학과 교수)은 11월 15일 개최된 ‘포스트 혼종성 사회의 문화갈등 극복을 위한 교양 교육의 현황과 과제’ 주제의 제주·중앙대 공동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 위원은 2021년 제주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포스트 혼종성 시대 역량 중심 대학의 교양 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Focus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나는 방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홈페이지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까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언론중재위원회가 전하는 다채로운 소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공감블로그
blog.naver.com/pac3083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cnews



카카오톡 채널
‘언론중재위원회’ 검색 후 채널추가

흉악범의 변호인에 대한 보도 유감(遺憾)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불릴 만큼 천인공노할 흉악범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무슨 공식처럼 벌어진다. 먼저 그 변호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쇄도한다. 변호사 사무실은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되고, 변호사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그 가족 신상까지 털린다. 결국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변호인은 사임한다. 재판부는 할 수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변호인에 대한 비난은 그제야 수그러든다.

언론보도는 그 모든 과정을 중계하듯 집요하게 따라간다. 노골적으로 흉악범의 사선(私選) 변호인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기사를 쓴 기자는 보도 뒤에 일어날 그 모든 일을, 그리고 그 기사에 달릴 수많은 비난 댓글을 아마도 예상했을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팩트 보도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지만, 들끓는 비난 여론을 방패처럼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 ‘조희수 올리기’를 즐기는, 겉과 속이 다른 보도다.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연히 흉악범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직업 본연의 당연한 일이다. 형사 변호인이 의뢰인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것은, 증거를 위조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아닌 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변호사의 숙명이다(헌법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제 아무리 전관 출신 변호사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증거가 뻔한 사건은 누가 변호를 하든 형량도 예상대로 나온다. 그럼에도 흉악범의 변호인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현상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언급하는 소신 있는 기사는 거의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사임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제대로 지적한 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소정의 수임료를 받는데, 그 돈의 출처는 공적 자금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되는 흉악범을 위해 나라에서 돈을 들여 변호해 주는 건 괜찮고, 흉악범이 자기 돈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그토록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역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없다. 국선변호 비용이 너무 소액이라 괜찮다는 걸까. 설마 그렇지 않은 것이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내심은, 국선변호인의 변론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사선 변호인의 변론과는 달리 성의 없고 형편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피고인이 중형을 면치 못하는 ‘정의 구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서가 아닐까. 국선변호인이 그렇게 성의 없이 변론한다면 언론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야 마땅하다. 물론 형식적으로 변론하는 국선변호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국선변호인은 어떤 사건이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내고자 최선을 다한다. 국선 변론의 품질향상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는 걸 보면 언론은 이미 알고 있다.

억울하게 기소된 이든, 인면수심의 뻔뻔한 변명을 해대는 이든,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고, 공적 자금은 그럴 여유가 없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보도 관행은 흉악범의 사선 변호인을 압박해 줄줄이 사임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한 개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함은 물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는 이들을 공적 자금으로 도와주는 셈이 된다. 공적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정의 구현의 결과가 빛날 수 있는 재판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  사람 웹진 개편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이 웹진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2009년 11월 첫 선을 보인 언론중재위원회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이 2022년 1월부터 웹진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그동안 지면으로 전해드렸던 다양한 글과 소식들을 이제 PC,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보다 빨리, 더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웹진 <언론  사람>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해주세요. 매월 2회, 웹진 <언론  사람>에 수록된 글과 언론중재위원회 소식, 언론법제 관련 전문 자료 등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오랜 시간 <언론  사람> 지면을 구독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찾아올 웹진 <언론  사람>에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 정보자료실 메뉴

> 정기간행물

> 언론사람 뉴스레터
구독신청하기 클릭!

정기 간행물

언론  사람	언론유망	언론포럼특집/세미나/특별기고
언론관련문헌정보/보고서/국내외문헌계 동향	언론보고서	매주언론포럼서 보고서
언론가서상대책서		



